



2000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일 화장실 포럼 개최하기로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사무국장 강 석 남

일본화장실협회일행(사무국장 우에, 간사 가토오)이 지난 5월 17일 한 일 화장실포럼의 공동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를 방문하였다. 일본화장실협회는 1985년 설립되어 올해로 15년 째 활동해온 역사가 있는 단체이다. 이단체는 매년 전국화장실포럼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자료수집 연구논문발표 등의 활동으로 일본의 화장실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강석남 사무국장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한·일 화장실 포럼 공동개최의 의의

일본은 화장실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15년 이상을 이 분야에 대해 연구 노력해 왔습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화장실관련 연구논문이 한국에서는 1997년 수원시에서 개최한 화장실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몇 편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1999년에 와서야 서울시, 2002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가 심포지움을 개최한 외에는 연구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 국제적인 포럼개최를 통해 국내의 연구를 촉발시키고 타국의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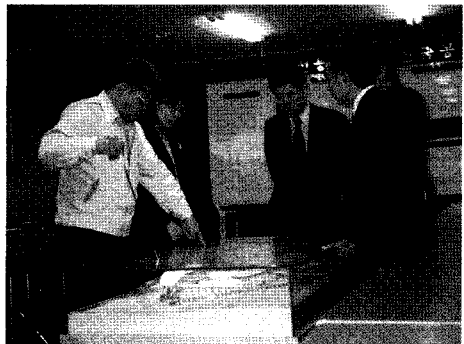
어떤 내용을 다루나

우선 화장실문화의 정착 및 그 운동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지며 구체적인 포럼주제는 「화장실의 디자인」, 「자연 환경과의 조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화장실」, 「화장실의 유지관리방안」 등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화장실 설계 및 디자인사례」, 「에너지절약형 화장실기구」, 「환경친화적인 화장실모델의 제시」 등 다양한 내용의 기술 세미나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있나

작년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화장실 심포지움이후 여러차례 팩스 및 전화를 통해 협의해 오던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들이 이번에 방문한 것입니다. 장소, 일시 및 발표



▲ 수원월드컵 축구 전용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화장실 운영 방안 및 천연 산디관리 계획 등을 듣고 있다.



▶ 협의회 심재덕 회장을 예방하고 11월 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화장실 포럼」의 기조연설에 대한 초청장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내용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한 만큼 이제 우리 협의회가 구체적인 발표자를 섭외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협의회의 조직 활성화와 연관지어서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려면 비용도 꽤 들텐데

기본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이 결정되었고 개최지인 수원시의 후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화장실문화 개선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화장실관련 학술회의이므로 단체회원사, 관련업체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의 한일심포지움을 계기로 조직정비 및 국내활동뿐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생각입니다. 비록 한국의 화장실 문화운동이 늦게 출발하였지만 그만큼 우리의 필요성은 절박합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기를 모아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새로운 화장실 문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또 외부적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문제, 환경 문제도 아울러 생각하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를 잡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